

테마칼럼

광안과 생활

문화의 향기

디자인 세상

과학과 경영

기회의 평등이 능사는 아니다



유정식

기회의 평등만 외친다고 불평등 문제 없어지지 않아 불평등을 완화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위기탈출 해법

캐슬 슈블리는 짧은 꼬리원숭이의 여러 집단에서 서열이 높은 원숭이들만 따로 모아 집단을 구성해 인위적으로 서열을 조작한 실험을 수행했다. 여러 원숭이들끼리 치열한 서열 경쟁이 벌어졌는데, 예전에 높은 서열을 점하던 원숭이들은 서열 추락의 수모를 당해야 했다. 새로운 권력자가 출현하면서 서열 다툼은 일단락되었는데, 슈블리가 관찰하고자 한 것은 서열의 재편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원숭이들이 생리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서열이 낮아진 원숭이들을 검진했는데, 그들에게서 동맥경화증, 복부비만, 고혈압 등의 이상 증세가 퍼져 있음을 발견했다. 실험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모든 원숭이에게 똑같은 먹이를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은 사회적 지위의 하락 때문에 발생한 것이 명백했다. 서열이 낮은 원숭이는 서열이 높은 원숭이로부터 언제 공격당할지 불안에 떨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더 많이 분비한다. 코르티솔은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과다 분비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우울증에 빠지며 질병인자를 활성화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서열이 낮아진 원숭이들에게서 질병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실험이 최고 의사결정자로부터 말단 사원에 이르는 위계체계를 보유한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서열이 낮은 말단 사원일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져 건강하다는 뜻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서열체계는 구성원들의 공식적이거나 암묵적인 합의 하에 형성되고 누구에게나 당연시되므로 말단 사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스트레스를 더 받을 일은 아니다. 게다가 자신과 처지가 같은 동기들이 있으니 위안이 된다. 쉽게 말해 '그러려니'한다. 이 실험의 핵심 메시지는 원래부터 서열이 낮을 때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서열이 변동될 때 문제가 야기된다는 사실이다. 강력한 카리스마와 권력을 가진 경영자가 하루아침에 임원을 말단 사원으로 내리고, 대리를 부장으로 올리는 조치를 취하면 아마 서열이 낮아진 원숭이들의 고통을 인간들도 겪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의 위계체계가 이처럼 마구 뒤섞이는 일은 없다. 그래서 기업 조직은 원숭이 사회와 다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갑작스레 서열이 뒤바뀌는 현상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면서 기업 혁신의 도구로 찬양받는 무언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과주의 제도들이다. 성과주의의 핵심논리는 동일한 직급과 연차라 할지라도 역량과 업적에 따라 연봉을 차별적으로 지급해야 성과를 창출하려는 직원들의 동기를 고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 잘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회의 평등' 논리는 기업들로 하여금 성과주의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강권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저기서 자주 발견된다. 남

들보다 덜 받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괴롭고, 더 받는 사람은 보상이 보잘 것 없다며 투덜댄다. 업무를 소홀히 하며 목표 달성에만 매달리고, 협조 요청을 무시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등의 문제가 성과주의의 효과를 압도해 버린다. 그 이유는 성과주의 제도가 기존 서열 체계를 흔들어대면서 동일 직급에 동일 연차면 동일한 보상을 받았던 평등한 조직을 불평등한 상태로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이치로 가와치는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구성원 간의 신뢰가 미약하며 적대감이 강화된다고 말한다.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그 상대적인 차이가 크면 사람들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성과를 높이려면 신뢰와 건강이 생명인데, 성과주의가 오히려 그것들을 파괴해 성과를 저하시킬 수도 있으니 아이러니다. 기회의 평등을 외친다고 해서 많이 받는 사람과 덜 받는 사람 사이의 불평등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만큼 기회의 평등을 무조건 추구하는 것도 큰 부작용과 해악을 야기한다. 보상의 차등화 확대를 작금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도깨비방망이로 여기는 기업들 종종 목격한다. 이럴 때일수록 불평등을 완화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진정한 해법이다. <인퓨터컨설팅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병희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성격이 많이 변했다. 친구하고 어울리지 않고 학원 수업을 빼먹기도 하고, 성적도 엉망이 됐다. 어떤 날은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식사를 거르기도 한다. 보다 못해 게임을 못하게 하게 막으니 바깥에서 PC방으로 나들고 PC방에 가기 위해 거짓말에 돈까지 훔치기도 한다. 요즘 자녀의 컴퓨터 중독을 해소하려는 부모가 많다. 주위의 소아·청소년들을 보면 이런 현상이 내 아이의 일이고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2007년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14.4%, 성인 6.5%가 온라인 게임 등으로 인해 중독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인터넷과 게임 중독을 해결하려면 우선 '조금만 더'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함께 인터넷 사용 시간표를 만들고 지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인터넷 사용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나갈 필요가 있다. 조금씩 이용 시간을 줄이고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게임의 속성을 파악해 적당한 난이도를 가진 게임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좋다. 청소년을 게임중독으로 몰고 가는 사회·심리적 원인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 부모나 주위의 과도한 기대에 의해서 생긴 학업 스트레스와 폭력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

계 일선에서는 실제 게임중독자 수는 이 같은 통계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서 생기는 증상으로는 눈이 건조해지고, 목과 어깨관절 장애, 척추 측만, 요통 등이 있다. 또 과도한 긴장상태의 연속으로 인해 스트레스성 장애, 만성적 수면부족, 만성피로 등도 나타난다. 심하면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같은 정신질환으로까지 번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성의 상실, 대인관계 장애, 성격장애로 까지 나타난다. 그러나 게임 중독은 아이들을 꾸짖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컴퓨터 게임은 학원에 시달리고, 놀이시설 이라고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들의 거의 유일한 놀이수단이자 문화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무작정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적이거나 부정적인 아버지와 같은 가족, 사회 구성원에 문제가 있어서이므로, 기대수준을 낮추어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고 가족 상담을 해야 한다. 게임중독의 폐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게임중독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도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도 중국처럼 게임을 3시간 이상 계속하면 '과로시간에 진입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주고, 그래도 쉬지 않고 게임에 빠질 경우 그동안 얻은 게임 아이템 가운데 반을 삭제하고, 5시간을 넘으면 '건강에 해로운 시간에 진입했다'는 경고음 준 뒤 게임 아이টে임을 모두 삭제하며, 게임을 3시간 이상 한 청소년 이용자는 게임을 끝낸 뒤 5시간이 지나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는 '인터넷게임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한다. <미래이동병원 원장>

인터넷 전화 해킹·스팸 대책 세우야

인터넷전화의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 한 푼이라도 통화요금을 아껴 가계 통신비 절감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채팅, 파일을 주고 받는 수준을 넘어 음성통화는 물론 영상통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기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전화에 연결된 초고속 인터넷 회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해킹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문매체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 집전화가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해킹 당하고 불법 스팸 전화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값싼 요금과 편리함에 대한 인터넷전화의 강점만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보다 해킹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옥신·광주 북구 우산동

기고

전갑길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대공황의 늪으로 내몰고 있다. 광주·전남 경제 역시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파탄이다 못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적 경기침체를 촉발한 미국의 금융시장 위기는 조기 진화가 불가능한 것이었을까. 미국의 금융당국이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금융위기의 파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을까. 그리고 피해와 파장을 최소화할 수는 있었을까. 장기적 지평이 나오고 있다. 현실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지 못한 결과 대응

이를 위해 미래형 도시공간 재창조, 일삼고 호흡하는 문화예술,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공동체, 첨단산업밸리 조성 등 10대 핵심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공간, 교통, 환경보존, 문화·관광, 복지, 교육, 산업, 농업, 행정 등 9개 분야의 세부 정책을 담았다. 무엇보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천혜의 자연조건, 광주의 경제 중심지, 교통의 요지, 전통과 현대의 공존, 도·농 복합도시 등 광산구의 보유자원과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진단하는 데서 출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밖에 복지, 교육, 산업 등 각 분야별 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여건에 부합하는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광산구는 50만 인구시대를 대비하고 친환경적, 효율적 발전을 위해 이번엔 마련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지역 경영 정책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 광산구청장>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하는 수단 역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전 세계가 경기침체라는 쓰나미에 휩쓸리고 만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최대의 피해자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정책의 수용자들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현재의 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민들에 대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지른 잘못된 진단과 비전에 대한 책임은 지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광주 광산구는 최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아래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광산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마련했다. 외부 영역과 보고회·워크숍 등을 통해 마련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생태환경 도시, 문화·관광 도시, 첨단산업 도시, 창조적 거버넌스 도시 등 5대 목표를 통해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고품격 명품도시 광산'을 지향하고 있다.

구 동쪽을 도시개발축으로, 하남산단 등 서쪽을 산업물류축으로, 분항·임곡 등 황룡강-여들산-용진산을 자연생태축으로 삼아 미래형 도시공간을 재창조해 나간다. 또 교통분야는 편리한 접근체계 구축을 원칙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우선으로 도로 등을 개설하게 된다. 환경분야는 역점 정책인 '저탄소 그린시티 광산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주요 하천의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도상녹지를 35% 확보, 소음 및 진동 저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복지, 교육, 산업 등 각 분야별 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여건에 부합하는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광산구는 50만 인구시대를 대비하고 친환경적, 효율적 발전을 위해 이번엔 마련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지역 경영 정책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 광산구청장>

인파 많은 버스 승강장서 담배 피워서야

아침 출근길에 비가 내렸다. 버스승강장에 지붕이 설치돼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던중 어디선가 담배냄새가 났다. 나 말고도 다른 여성 승객들이 담배냄새에 눈살을 찌푸리며 힘들어 했다. 50대 초반쯤 돼보이는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물론 버스승강장은 밀폐된 공간은 아니다. 하지만 비가 오니 다른 곳으로 피할

수도 없이 고스란히 간접흡연을 하게 됐다. 가까이 다가가서 조용히 "아저씨, 담배좀 꺼주세요"라고 했더니 별 웃기는 사람 다 본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여기는 금연구역 아니다"며 계속 피웠다. 버스승강장 등 인파가 많은 공공장소는 금연구역으로 규제했으면 한다. <▲한선희·목포시 놀도동

시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철저히 규명해야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의원 4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명, 광역의회 의원 24명이 부당 수령자 명단에 포함됐다. 본격적인 확인조사가 이뤄지면 숫자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의 공직자도 124명이나 된다. 부당 수령 의혹에 연루된 공직자가 지 감안하면 4만여명에 이른다.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비록 구매 및 배부 수매실적 등이 직접 경작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쯤되면 나랏돈은 공짜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이들을 모두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공무원 등이 쌀 직불금 부당 신청 의혹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보통 문제는 아니다. 확인조사를 거쳐 드러나겠지만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 국민의 혈세로 자기 호주머니를 챙겨왔다면 우리 사회의 기강이 제대로 설 수는 없을 것이다.

의혹 관련자들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본인 명의의 땅에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어 직불금을 받았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공직자 등이 허술한 법을 악용해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쌀 직불금은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이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당 수령자를 정확히 가려내야 한다. 지도층의 불법행위까지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당 수령자에 대해선 환수와 함께 중징계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직불금 부당 수령자 공개는 명예훼손 논란보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전공의 '3D과목' 기피 두고만 볼 것인가

광주지역 병원의 전공의 모집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안과·신경외과·성형외과 등 '돈 되는 과목'에는 지원자가 몰리고 흉부외과·외과·응급의학과 등 소위 '3D 과목'에는 지원자가 없거나 미달하는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내년도 전남대병원 전공의 평균 경쟁률은 1.23대 1이지만, 흉부외과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조선대병원도 1.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흉부외과 지원자는 없었다. 외과·응급의학과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들 과목은 전국적으로도 미달됐다. 흉부외과 0.25대 1, 외과 0.52대 1, 산부인과 0.68대 1을 기록했다. 반면 안과, 정신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는 지방생이 몰렸다. 아무리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스러운(dangerous) 일을 기피하는 세태라지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까지 이럴 수 있는나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의료계는 3D과목

의 대우가 하는 일에 비해 현명없고, 치료비도 너무 낮다고 주장한다. 이들 과목의 국·공립병원 수련의들은 한 달 50만원의 수련 보조수당을 더 받을 뿐이다. 그나마 민간병원 수련의에게 지급되기도 않는다. 문제는 이들 과목의 전공의 부족 현상이 수년째 누적되면서 의료 서비스 불균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병원은 흉부외과 전공의가 부족해 간호사를 훈련시켜 심장수술 보조로 쓸 정도라고 한다. 이렇다가 심장수술 같은 의료서비스를 국내 병원에서 받는 것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행히 정부가 내년부터 3D과목에 대한 진료 수가를 1~3% 올린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과와 응급의학과 등은 의료의 기본이나 다름없다. 비인기과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힘든 일에 상당한 보수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無等鼓

중화권 최고의 쿵푸(功夫)스타 청룡(成龍·54)이 최근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중국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죽기 전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그의 재산은 20억 위안(약 4천3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가수로 활동중인 외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 "능력이 필요 없을 것이고, 능력이 없다면 아버지의 돈을 헛되어 탕진할 것"이라며 상속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금은 비정해 보이기도 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가져오지 않았던 것처럼 가져오지 않았던 것처럼 가져가지 않는다" (生不帶來 死不帶去)는 인생 철학을 소개했다. 즉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의 가난한 집에서 외아들로 태어난 그의 분명은 천홍성(陳港生)이다. 제1차, 청룡 등은 예명이다. 호주 주재 미국 대사관 주방장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따

기부한 적이 있다. 위험한 장면에서도 스티븐 트랜을 쓰지 않고 직접 연기하며 이살스런 표정으로 웃음을 주는 청룡. 전 재산 기부 약속으로 또 한 번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됐다. 청룡의 기부 소식에 맞춰 우리나라에서 법 주재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生不帶來 死不帶去)는 인생 철학을 소개했다. 즉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의 가난한 집에서 외아들로 태어난 그의 분명은 천홍성(陳港生)이다. 제1차, 청룡 등은 예명이다. 호주 주재 미국 대사관 주방장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따

청룡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